

전의령

신자유주의적 탈정치화와 난민의 위계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신자유주의적 탈정치화와 난민의 위계”라고 제목을 지었고요. 신자유주의적 탈정치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난민의 위계가 무엇이나를 처음부터 설명을 하기보다는. 제가 이야기를 하고난 다음에 ‘아 이것은 신자유주의적 탈정치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는 난민의 위계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강의 소개에도 나갔듯이. 제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올해 아프간 협력자들이 들어왔고 그때의 상황과 2018년 상황. 계속 오버랩되는 2018년 여름에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그 상황이랑 비교해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강의 주제로 준비해왔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 번 2018년의 상황을 돌아보자. 3년밖에 안 지났죠. 물론 코로나 전후가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3년밖에 안 됐다. 3년 동안의 간극은 있지만. 너무나 엄청난 격차가 있는 사건들. 2018년은 이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가짜 난민이라고 바로 규정지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전국적으로 제주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조직하고 난민반대를 외쳤죠. 혐오가 아니다. 안전을 원한다라는 피켓들. 국민이 먼저다. 국민은 안전을 원한다라는 피켓들. 그때 굉장히 많이 도드라졌던 분위기였는데요.

그러면 2018년에 어땠는가? 그 사이에 코로나 시국이 있었지만. 이게 같은 나라라고 아니면 같은 사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에 굉장히 엄청난 드라마틱한 간극을 보여줬던 2021년의 상황. 아프간에서 미국이 철수하겠다고 결정하고 발표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아프간에서 아프간 현지 조력자들을 한국으로 모셔오겠다라는 외교부의 발표가 있고 바로 378명의 사람들이 입국을 했죠. 그러면서 바로 이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기여자다. 사실 그 전에 바로 그 전날인지 몇 시간 전인지 특별공로자라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바로 또 바뀌었죠. 특별공로자든. 특별기여자든. 아무튼 난민이 아니다라는 정의와 함께.

또 바로 어떤 풍경이 펼쳐졌었느냐? 이런 사진. 이 사진을 보고 저도 눈시울을 붉혔는데. 이것을 보고 눈물이 그냥 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교육과 문화와 사회의 영향 속에서 우리가 주체화됐는데 눈시울이 안 붉혀질 수가 없겠죠? 자 근데 아무튼 눈시울 붉히게 하는 그런 장면들과 분위기. 그리고 또 이런 상황들. 미디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인류애 모범’인 그런 이야기들로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미디어 내용들이 채워졌었던. 그리고 또 저는 사실 이 이미지는 오늘 처음 봤는데. 히잡을 쓴 여성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따뜻하고 환대 메시지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굉장히 예외적인 어떤 재현 아닌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2018년 여름

그래서 정리하자면 2018년 여름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 아시겠지만, 일반시민의 반대가 있었죠. 정말 근처의 평범한 일반 시민의 반대가 있었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출처? 어떤 소속? 어떤 분들이나? 했을 때 여초카페에서 굉장히 많이 이런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맘카페라든지. 오랫동안 존재했던 반다문화 커뮤니티라든지 또는 랩팸으로 본인을 정체화하는 페미니스트들. 사회에서도 난민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울려 퍼졌었고. 또 이분들은 시점을 구분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극우 기독교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꼭 난민이 아니라 난민 특히 이슬람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어마어마한 혐오적인 메시지를 뿌리고 있었고. 또 이때 만났던 거죠? 이 분위기 속에서 편승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있었죠?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이들의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라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 속에서 난민문제는 어떻게 정의됐는가?

- 첫 번째로 국가안전의 문제로서 즉 예멘 난민은 가짜난민이다. 테러리스트다 라는 정의.
- 두 번째는 민생파괴문제다. 예멘 난민은 가짜 난민이자 이주노동자 아니냐? 이 사람들이 무슨 난민이냐? 이 사람들은 가짜고 경제적 이주노동자야. 불법체류자가 될 사람이야.
- 세 번째는 이게 어떻게 젠더화된 성별화된 불안을 야기했는가를 이야기할 때 중요해지는 난민의 정의였었는데, 이것은 여성의 인권 안전의 문제다. 왜? 예멘 난민? 특히 여기에 남성들이 많아. 이슬람 남성? 무슬림 남성? 잠재적인 성범죄자야 성착취자야. 라는 정의 재현 속에서 여성인권 안전의 문제까지 되는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와 혐오가 섞여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자 그리고 정부가 70만 명 넘는 사람이 국민청원에 서명을 하고. 정부가 발표를 해야하잖아요?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되. 허위 난민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낼 것이다.”라고 하는 발화를 통해서 사실상 난민반대 담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짜 대 진짜라고 하는 이분법을 아주 확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8:37)

2021년 여름

그러면 2021년 여름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정부에서 입국한 아프간 난민들을 아까 외교부장관의 사진도 있었고.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로 일사천리하게 이미 어떤 논의들이 있었겠죠. 아프간인들 378명을 입국시키면서 이들은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다. 특별기여자다 라고 바로 정의해버리죠. 미디어에서는 외교부의 미라클 작전에 대한 칭찬. 자화자찬. 해외에서 다 우리를 보고 있는 듯이. 외신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실시간으로 새롭게, 근데 거의 비슷하죠. 칭찬 자화자찬. 해외에 모범을 보여줬다. 또는 인권선진국으로 드디어 인정받는 것이다라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또다시 그런 모습으로서 이 분위기가 급반전되는. 큰 반대나 논쟁은 없었죠. 큰 반대나 논쟁이 없는 환대 처럼 보이고 환대이기도 하고. 이 환대 성격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환대는 우리가 보통 따뜻하고 웰컴으로서 이해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단순히 환대를 처리할 수 없겠죠. 환대는 사실 권력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논쟁 없는 환대인데, 그 환대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난민들인데, 난민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 난민상황이긴 한데, 난민은 없는 상황? 이 환대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들

질문들을 뽑아봤는데요.

- 첫 번째로 2018년 여름과 2021년 여름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두 번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2018년 500여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어떤 (전지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입국해서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진 것인가? 아까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힌트들은 이미 이야기가 됐어요. 그것의 맥락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요.
- 2021년 378명의 아프간인들을 특별기여자로 정의했는데. 이렇게 정의하게 된 더 큰 맥락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여름 지나고 코로나 시국 속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특별기여자로 정의됐는데, 그 맥락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국제관계 속에서 입국을 하게 되는가. 아니면 이들에 대한 환대는 더 큰 국제적 맥락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죠. (12:33)

전지구적 안전의 정치

그래서. 첫 번째로 2018년에 예멘 난민들은 제주도에 입국했던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에 입국을 하였습니다.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전지구적 안전의 정치. 안전 대신 안보, 치안, 불안, 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게 불안이라는 감정이잖아요? 안전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거죠. 안보, 치안, 불안 기타 등등의 정치로서 이야기될 수 있는 전지구적 맥락이 있다. 그것은 911 이후라고 하는 특정 시점 이후 전지구적 분위기. 그리고 여기에 빨라야 빨 수 없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같이 묶이면서 어떤 파급효과 어떤 정치를 글로벌하게 만드는가? 자본은 자유롭게 이동하죠. 하지만 인구의 이동에 위계적 규제를 두는 것은 크게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라이제이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911 요인. 포스트 91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어떤 성격을 더하는가? 이주민 난민 여타 소수자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특히나 어떤 사람들? 여러 이주민들. 물론 전체적으로 이주민 난민 여타 소수자를 규제하지만 특히나 이슬람계 또는 무슬림계 사람들. 이주민 난민 아니면 이미 서구에서 몇 세대 거쳐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 커뮤니티들 규제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발전한 게 유럽과 미국. 유럽과 북미. 극우정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발전하게 되는 것이 이 무슬림, 유색인종 남성, 이주민, 난민, 소수자는 위험한 존재라고 하는 한편에서 그 재현.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들로부터 사실상 보호되어야 할 국가 안보, 안전 치안이라고 하는 이분법이 극우정치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이죠. 이게 어떤 예멘 난민들이 한국에 입국했을 때 배경이 되는 글로벌한 맥락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크게. 근데 현지 맥락은 무엇인가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겠죠. 글로벌이 모든걸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글로벌 플러스 로컬? 또는 로컬의 글로벌이 재현되는 것인데, 로컬의 측면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15:23)

세대화, 젠더화된 불안의 정치

사실은 안전의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면 불안의 정치라

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자. 그것의 더 큰 맥락은 잘 아시는 IMF 이후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화 속에서 사회적 불안정성이 증대되게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의 가장 여성과 남성이 물론 다르게. 하지만 세대. 한국에서는 계급이 나와야 되는데, 계급보다 세대가 전면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준비하면서 세대화된 불안의 정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대화된 불안의 정치가 펼쳐지고 있었죠. 이것은 간단하게 한 슬라이드 안에 설명하기 복잡하죠. 여러 가지 신자유주의 불안정성의 정치가 있고, 미투 이후에 2015년 이후 급발전하게 되는 급성장하게 되고 그런 어떤 젠더의 정치가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 여성 인권 여성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대중화된 페미니스트 목소리를 통해 표출되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속에서 이 분들이 입국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불안이 투영이 되는 얼굴이었다. 글로벌하고 로컬이 복잡하게 얽혀서. 그래서 예맨 난민들은 사실 예맨과 한국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굉장히 관계가 밀접하지는 않죠. 하지만 여러 가지 로컬의 맥락에서 이분들과 역사적 대면적 실질적 관계가 굉장히 희박하고 부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면 '이슬람 없는 이슬람 포비아'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이슬람 포비아는 뭐냐? 이슬람이 사실은 우리와 관계가 부재하지 않는. 이슬람 없는 이슬람 포비아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한국의 상황을 잘 포착하죠. 부재하지만, 이미 전지구적 맥락에서 특정하게 젠더화 인종화된 몸으로 입국을 했다. 그리고 입국하자마자 공포와 불안의 상징이 된다는 거죠. 젠더화 인종화된 몸이라는 것은 아까 그 테러리스트야? 범죄자야? 아니면 이슬람 남성? 근본주의 가부장제. 어마어마한 공포 속에서 잠재적인 성착취자 또는 성범죄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입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예맨 난민들이 입국했을 때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보이는가를 설명하는 사회적 맥락들이요. (18:30)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

자 그러면 아프간인들은 굉장히 다른 맥락 속에서 입국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그들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이었는데 여러 가지 맥락들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로서 정의가 됐죠. 아프간인은 난민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서 피난시킨 한국정부의 모습은 사실상 난민인권센터에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1994년 이후 연평균 1.5%밖에 안 받아들인거죠. 1994년은 어떤 해였나? 한국이 난민협약가입국이 된 해지만. 대개 오래 됐어요. 1994년부터 형식적으로는 받아들인 나라지만. 연평균 1.5%는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세계 최하의 난민인정율이란 기초를 그대로 반영하기는 해요. 이들을 이론적으로는 난민인 사람을 난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 난민이라 정의했을 때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책임들을 미리 차단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부를까? 설명하고자 할 때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은데. 그것은 특별기여자로 정의된다면, 여전히 무엇에 대한 기여와 공로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뭐에 대한 공로. 아직은 한국 땅에 들어와 어떻게 공로할 것인지 기여할 것인지는 아직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닌거죠. 그러면 그 전에 이분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어떤 존재로서 규정이 됐고. 그 규정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어떤 관계를 우리가 서로 가져왔는가? 그럴려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이분들과 한국의 관계. 또는 한국이 그 이전에 이분들과 아프간과 한국이 관계 맺게 된 맥락 그 모든 것을 추적, 역추적해서 이해해봐야겠죠. 설명해야겠죠. 그

려면 이게 나오는거예요. 미국과 동맹국이 2001년 이후 침공 후 주도한 재건은 궁극적으로 어떤 과정이었는데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바로 이 맥락 속에서 이미 우리는 20년 동안 굉장히 구체적인 관계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의 성격은 무엇인가? (21:08)

신자유주의적 발전주의

2001년 전쟁이 있었고. 20년 동안 아프간 전쟁은 사실상 미국이 벌인 가장 오래된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2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은 “신자유주의적 국가 만들기” 탈레반을 쫓아내고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 국가의 모습. 성격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적 국가만들기” 또는 “군사적 신자유주의” 라는 말로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군사적 신자유주의는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신자유주의는 보통 경제적인 프로그램들을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군사적으로 뭘 했는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표현일 수 있을 거 같아요. 지난 20년간 아프간은 제3세계 발전을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와 풀뿌리 세계화 그리고 NGO 통치성이라는 복잡한 기획에 새롭게 편입되었다. 전쟁이 있었고 침공과 재건이 있었는데, 그 재건의 과정은 바로 신자유주의적인 발전주의 기획의 과정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은 바로 사실상 그 이전에 침공, 점령, 지배라는 정치적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 상황과 그 속의 권력관계를 경제적 상황과 사회경제적 원조-수혜관계로 탈바꿈한다는 거죠. 분명히 침공이 있었고, 전쟁과 침공과 지배라는 게 있는데. 발전주의 기획이 쑥 들어오면서 신자유주의적 발전기획의 대상으로서 새롭게 세계시장에 편입하게 되면서. 아프간과 미국. 또는 미국과 동맹국과 아프간의 관계는 어떻게 재정의 되는가? 경제적인 관계. 원조-수혜관계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거죠. 즉 군사적 폭력과 지배를 무화하고.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기반이겠죠? 이 관계를 무화하고 그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발전사업 원조-수혜관계를 만들어내고 그거로 메꾸고 거기서 가능해지는 것이 특별기여자라고 하는 여전히 조금 어떤 기여자인지. 근데 그 기여자인지 성질은 사실상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롭게 전유되는 이 상황 속에서의 어떤 기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당면해온 역사적 정치적 복잡성은 지워지고. 이분들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제국주의 역사? 지배와 피지배 관계 속에서 굉장히 복잡한 폭력적인 그런 현대사를 경험해온 게 아프가니스탄이고 아프간 현지인들이죠? 그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복잡성은 지워지고 원조의 대상이자 사회경제적 발전의 주체로 재정의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다 많은 정치적이고 여러 가지 내전과 제국주의 침략과 그것에 애프터맨 여파라고 할 수 있죠. 20세기와 21세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발전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와 기획 속에서 새로운 주체들로. 발전의 주체들로서 원조의 주체. 대상으로서 재정의되는데. 아프간인들도 똑같이 재정의 속에 편입이 되는 과정이 바로 20년 동안의 점령의 과정이 아니었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국제 관계, 국가들 간의 관계는 어떤 식의 성격을 가지는가? (25:21)

어떤 국제 관계

자 먼저 한국의 ‘미라클 작전’이 그 자체로서 인도주의적 행위였음을 부정할 수 없죠. 그거 자체는 인도주의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인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독립적으로 형성되고 현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인도주의는 정치와 강력히 결합해 왔어요. 그리고 그 속

에서 군사적 인도주의. 또는 인도주의 전쟁이라는 모순이 지난 20년간 특히 이라크전쟁 아프간 전쟁 이후로 이런 모순이 실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그런 침공 이전의 어떤 상황이었는가? 아니면 어떤 명목하에 침공을 하였는가? 911테러에 대한 보복. 아프간 여성들을 탈레반의 억압으로부터 구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모든 것이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명목이죠. 인도주의 목표를 가지고 침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도주의 전쟁 또는 군사적 인도주의.

따라서 '미라클 작전'이라고 하는 한국이 지금 2021년 8월 미라클 작전이라고 하는 인도주의적 사건 이전에 그 맥락들은 훨씬 더 복잡하다. 자 먼저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과 재건 참여부터 이야기해야겠지요? 다시 우리의 관점에서 다시 추적한다고 할 때,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과 재건 참여는 미국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간 게 아니라. 미국의 명목은 이거였죠. 테러리스트들? 이슬람 과격분자들로부터 세계 안정과 제3세계 여성인권을 보호하는 존재로 자임하는 미국의 인도주의 패권의 모순이 있고. 한편 우리가 왜 파병해? 우리가 파병할 수밖에 없는 그 맥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냉전의 연속성 속에서 구축된 한-미 군사적 위계인거죠.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냉전이라고 하는 것. 다른 데서는 냉전이 끝난 것 같지만 사실 동아시아에서는 냉전이 아직 지속되고 있는. 질서의 변동 속에서 계속 살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안에서 우리가 파병하지 않을 수 없고. 재건에 참여하게 되는. 바로 이 삼각관계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있는 거죠.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의 관계. 자 그 관계를 다시 좀 성격을 분명히 해보자면 근원적 불평등이라는 말로서 표현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28:08)

근원적 불평등

근원적 불평등인데, 근원적 불평등은 어떤 성격을 지니는가? 아까 이야기했던 미국의 군사적 인도주의 또는 아프간 침공은 굉장히 인도주의적 명목.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겠다. 탈레반으로부터. 또는 아프간 여성들을 탈레반적 가부장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구할 것이다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군사적 인도주의는 민간인들의 엄청난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숫자가 계속 널뛰어요. 왔다갔다하거든요. 출처에 따라서 15만 명이 되었다가 어디는 25만 명. 아무도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는 더 나아가서 누가 죽었는지 누가 희생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911 테러 메모리얼 추모관에 가면 희생된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정확히 기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온라인 버전으로 추모관이 있거든요. 이게 아주 최근까지도 새롭게 다시 확인된 사람들. 그동안 찾지 못하다가 확인된 사람들이 아직도 그 사람들의 이름과 누구인지를 밝혀내고 기록하고 추모하는 과정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근데 어떤 사람들은 15만 명이 죽었는지 25만 명이 죽었는지 거의 10만 명 단위로 누가 죽었는지 뿐만 아니라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게 되는 상황은 이 사람들 간에 근원적 불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원적 불평등은 생명의 가치에서의 불평등일 수 있고. 그 생명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느 사람들이냐? 아프간인들이냐? 미국사람이냐? 한국사람이냐? 아니면 그런 것들에 따라 달라지는 국가 간의 위계와 불평등 속에서 사실상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지요. 여러 가지 모습의 근원적 불평등이 있는데. 그 인도주의는 우리가 당연히 추측할 수 있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라클 작전 그 자체로는 인도주의적일 수 있으나 그것을 가능케 한 수많은

은 맥락들을 봤을 때 인권선진국이라든지 ‘인류애 모범’ 뱃지라는 것은 사실상 어마어마한 부정의와 폭력 위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봐야한다는 거죠. 또는 한국의 미라클 작전이 ‘인류애 모범’이 되는 상황은 미국-한국-아프간 관계를 인도주의적 관계로 재정의 하지만, 바로 이 인도주의를 구성하는 것이 세 국가들 간의 근원적 불평등이라는 모순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2018년에 예멘 난민이 왔을 때 맥락과 그들이 그렇게 정의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한편으로 2021년 여름에 아프간인들이 들어왔을 때 이들이 새롭게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는 상황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요 개념을 가지고 왔어요. (32:00)

탈정치화

탈정치화라는 개념이 사실상 예멘 난민들 뒤의 맥락. 그리고 또 아프간인들의 맥락. 아프간인들이 처해있는 그 맥락. 사회적 상황. 전지구적 상황. 또는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의 관계.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기에 굉장히 키워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탈정치화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웬디 브라운이 설명한 방식을 같이 읽어보려고 이 단락을 가지고 왔는데요.

“탈정치화의 공통된 방식 중 하나는 정치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현상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그 현상을 조건 짓는 권력의 문제를 배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형태를 떠나서 모든 탈정치화 시도는 특정한 문제를 재현할 때 그 문제와 관련된 역사와 권력의 문제를 회피한다. 그런데 그 사회적 관계와 정치적 갈등을 구성하는 이 두 가지 결정적 요소 즉, 역사와 권력의 문제를 회피하는 순간 우리는 거의 필연적으로 문제를 자연화하거나 본질화해 설명할 수밖에 없다.” 마치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그렇게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것인냥 그 전에 권력과 역사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죠. 어떤 과정들과 관계라는 것을 다 지우고 그들을 자연화하고 본질화한다. “만약 관용의 대상의 구성 속에서 작동하는 역사와 권력의 문제를 배제한다면” 여기서 관용이라는 책에서 가져와서 웬디 브라운의 관용이라는 권력이 어떤 권력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탈정치화 개념을 가져오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관용 대신에 환대라는 말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난민을 바라보는 방식. 그럼 그들은 환대의 대상이냐 아니냐. 환대의 대상일 때 환대의 대상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라는 문제. “역사와 권력의 문제를 배제한다면 우리는 관용의 대상을 관용하는 주체와 태생적이고 본질적인 차이를 가진 존재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멘 난민이든 아프간인들이든 누구든. “갈등과 마찰은 이러한 차이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될 것이다.” 예를 들어 그 수많은 난민들이 처하게 된 상황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아프간인들은 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어? 역사적인 과정들을 우리가 추적해봐야겠죠. 그리고 권력의 문제. 이른바 제국들과 어떤 관계들을 가지고 있어? 소련과 미국과? 그 전에 몇 십년동안. 그런 것들 다 지워버리고. 사람들은 그냥 난민과 난민이 아닌 사람. 또는 시민과 시민이 아닌 사람들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와 과정을 배제해버리고. 그래서 탈정치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난민정치에서 난민들을 에워싸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과정.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아프간인들 아니면 이번의 여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덧붙여서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신자유주의적 탈정치화’의 모습인 것 같아요. (35:25)

신자유주의적 탈정치화.

근본적으로 탈정치화가 문제가 되고 큰 문제로 개입이 되고 있고. 지금 이번 8월에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 현실은 신자유주의적 탈정치화를 통해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신자유주의는 무엇인가? 정치적 현상과 문제를 사회경제적인 현상과 문제로 환원하고 이를 개인의 역량강화로 돌파할 것을 요구하죠. 난민은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 내전 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난민으로 어떤 사람은 불려지게 되고 난민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경제적 상황으로. 예를 들어 제3세계 또 다른 제3세계를 만드는거죠. 아프간에서 발전의 주체로. 원조의 대상으로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적 자기개발 담론 대상으로 만들고. 만들 때 개인적 역량 강화 스펙으로서 노력으로서 돌파할 것을 요구하는 게 신자유주의적 개발 담론이잖아요. 발전주의 담론에서 마찬가지로 논의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난민을 개인의 역량 강화로 돌파할 것을 그들의 상황.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인데 경제화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분위기? 모습들은 다양한 해외 원조 사업 공정무역 소액금융 기타 등등등에서 제3세계 또는 글로벌 남반구가 재현되는 방식에 깊숙이 스며들어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kiva 라고 하는 소액금융사업 잘 아시죠? kiva에서도 요즘 난민들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난민과 kiva? 난민과 소액금융? 마이크로 크레딧? 어떻게 연결될까? 수많은 난민들이 지금 전세계적으로 존재하고 난민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자기개발하는 주체로서 만들면서 뭘 하자는 거야? 한번쯤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의 난민정치. 지금의 글로벌 난민정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것인가? 신자유주의적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또는 금융화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스며들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아프간인들을 kiva에서 일어났던 사업들과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인 연결 키워드는 신자유주의이다라고 하는 것. (38:00)

정리

정리를 해보자면 2021년 입국한 378명의 아프간 난민들과 2018년 제주도에 입국한 500여명의 예멘 난민들에 대해 한국 사회가 보여준 극히 상반된 반응은 어떤 구조 속에서 설명 가능해지는가?

방금 제가 설명했듯이 전지구적 안전정치의 탈정치화라는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탈정치화라고 하는 흐름이 있고. 그 둘의 콜라보 속에서 사실상 구축되고 있는 것이 난민의 위계가 아닌가? 수많은 난민들이 있어요. 그 난민들 사이에서도 이론적으로는 다 난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난민들 사이에서도 어떤 위계를 두는 그런 정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난민들 속에서 어떤 난민은 특별기여자. 공로자로서 인정하고. 어떤 난민은 “이 사람들 가짜야” 또는 잠재적 성범죄자. 여러 가지 이름들로서 이 사람들. 인구집단 안에서 위계를 정하는 것. 이 위계를 정하는 것은 누구냐? 물어봐야겠죠. 그 안에서 어떤 특정한 인정의 정치가 지금 구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신자유주의적 발전, 자립, 임파워먼트 담론에 포섭된 또는 포섭될 수 있는 난민의 특별기여자로서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 예를 들어 지금 재건의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소수의 아프간인들이 한국의 특별기여자라는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라는 이름으로서 입국하게 되고 그렇게 인식되는 것.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난민들은 사실상 “지구의 쓰레기” 아렌트가 20세기 초중반 상황을 보면서 붙인 이름이겠죠. 이른바 다른 나머

지는 지구의 쓰레기화 되는 것. 지구의 쓰레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들. 이름으로 나눠게 되죠. 예를 들어서 불쌍한 난민이라고 하는. 이것은 제가 작년 난민 인도주의적 정치에서 이야기 했던 내용들과 연결시켜보면 좋겠고. 연민의 대상. 굉장히 파워풀한 연민의 대상. 또는 한국에서 보여줬던 2018년의 보여줬던 그 모습들. 혐오의 대상으로서. 요 안에서 어떤 위계? 나뉘어 있는데, 하나는 연민의 대상으로서 어떤 무리들. 또는 잠재적인 범죄자. 잠재적인 불법체류자. 또는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로서 명명하면서 혐오 또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것은 아렌트가 이야기했던 그 시대 이후에 벌어진. 특히 911 이후에 난민과 이주민. 특히 무슬림 이슬람 출신의 난민과 이주민이 어떤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되는가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 지구의 쓰레기라는 난민의 모습을 재정의하는 포스트 911 이후의 정치. 그리고 이것은 환대의 정치. 환대가 마냥 좋고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이게 아니다. 환대를 하면서 환대의 여러 조건들이 있다. 어떤 조건으로 이 사람들을 환대하는가? 바로 이와 같은 담론과 권력담론 속에서 난민을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들이 또 봐야겠죠. 어떤 식의 분위기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비디오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환대정치가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쪽에서 자유롭지 않게 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환대정치가 어떤 성격으로 발전할 것인가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기까지 일단 강의를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42:48)

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문이 옆에 추워가지고.

머리가 아프시죠? 추우셔서?

머리 이 선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약간 집중을 못하면서한 강의를 한 거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다가 마무리 하면 좋을 거 같은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냥 말씀하시면 될 거 같아요. 몇 분 안 계셔서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그 선생님 난민과 자기 개발 담론이 접합된 그런 게 예맨 난민 때도 두드러졌었나? 이런 질문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특별기여자로 불리면서 담론이 난민과 접합되면서 안착된 게 아닌가? 이런 고민도 들었는데요. 확실히 단절선은 있었던 거 같아요. 예맨 때와.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예맨 때는 그런 게 나오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니었죠. 그냥 그들이 입국하자마자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굉장한 공포와 불안이 넘쳐나게 되는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뭐. 그쵸. 그냥 들어오자마자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들과 우리의 관계. 그 감정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우리의 관계인데, 몇 가지 단서들은 전지구적인 911 이후에 반테러정치 그 속에서 무슬림은 어떻게 규정되는가? 난민은 어떻게 규정되는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한편으로 한국에서는 지금 10년, 20년 동안 어떤 상황이었나? 한국에서도 글로벌 대 테러 정치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죠. 우리나라도 테러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항상 테러라고 하는 것. 아니면 국가적인 치안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슬람=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서구발 뉴스들을 통해 미디어의 재현을 이미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경제적인 불안정 신자유주의적인 불안정의 증대 속에서 사회경제적인 불안정 또는 여러 가지 공정하지 않다.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누군가에게는 특히 더 공정하지 않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청년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아는 불안의 정치와 같이 맞물리면서 이들이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한국에 있다가 잠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분들인데. 근데 굉장히 히스테리한 반응을 보였죠. 근데 아프간인들은 확실히 20년간 우리와 굉장히 복잡하게 이미 밀접하게 관계를 맺게 된 거죠. 물론 그 전에 아프간 전쟁 이전에 한국과의 관계는 무엇이었는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조사를 해봐야 알겠죠.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하듯이 희박하죠. 예멘인들과 우리의 관계만큼이나 대면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관계는 없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우리가 아프간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파병하고 재건에 참여하게 되면서 어떤 관계를 가져온거죠. 20년 동안. 그리고 그 관계의 성격을 봤을 때 그것은 한국은 파병하고 파병은 군사주의적인 개입, 참여. 근데 재건은 신자유주의적인 발전기획. 발전주의. 그래서 여러 가지. 방글라데시에서 벌어지건 인도에서 벌어지건. 아프리카 케냐에서 벌어지건 여러 가지 어떤 사실은 한국은 예외적인 존재죠. 발전을 이룩하고. 거의 대부분의 탈식민주의 국가들. 20세기 독립한 국가들은 한국과 대만이나 이러한 아시아의 용들 빼놓고는 아직도 여전히 식민주의는 꺼졌지만. 제국주의는 끝났지만. 사실상 사회경제적인 식민주의=발전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의 대상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은 사실 전쟁 이후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서 여러 가지 냉전 속에서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경제발전 이루어졌잖아요. 한국만의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지정학적인 위치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발전담론은 별로 이야기 안 하고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3세계. 글로벌 남반구라고 표현되는 국가들의 운명은 사실상 신자유주의적 발전기획의 담론 대상으로서 그 개입의 대상으로서 살아왔다고 할 수 있는데, 아프간도 사실상 그 큰 기획의 하나에 포섭되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야기하는 거죠. 학자들이. 사실상 코이카도 가서 뭐해요? 아프리카 가서 뭐해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하죠. 발전주의적인 원조를 하는데. 그게 20년 몇십년 동안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역량강화. 임파워먼트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하고. 그래서 개인의 책임감. 우리 식으로는 신자유주의는 자기발전 담론으로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발전이라는 기획 속에서 신자유주의 했을 때는 그 자기개발이 개인화, 역량강화. 임파워먼트, 개인의 책임 그것을 이끌어가고 리드한다고 하는 NGO들. 이걸 'NGO 통치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그래서 그런 연결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계 속에서 아프간과 한국이 물론 미국이 있긴 하지만요. 중간에 어떤 관계들을 우리가 맺어 왔고. 그 관계 속에서 이들이 입국하고 그 관계 속에서 이들이 특별기여자라는 얼굴을 갖게 되고. 우리가 특별기여자라는 얼굴을 부여한 것이잖아요? 그 속에서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걸 좀 정리를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은 아이디어 수준이어서 글을 쓰면서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야겠죠.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해주셨던 특별기여자. 특별공로자의 정확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다 하셨는데요.